‘구해줘 홈즈’, 남의 집 구경 왜 인기 좋을까

먹방 홍수 속 주목되는 집방 예능프로그램

먹방이 지겨워? 이젠 집방이다! MBC 예능 프로그램 ‘구해줘 홈즈’에 대한 반응이 심상찮다. 일요일밤 6.5%(닐슨 코리아)의 괜찮은 시청률을 내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사실 그다지 새로울 건 없는 프로그램이 아닌가 생각됐다. 집의 인테리어를 소개하는 방송은 이미 아침 프로그램 등에서 무수히 많이 나왔던 소재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막상 방영을 거듭하면서 ‘구해줘 홈즈’는 우리가 봐왔던 그런 집 소개 프로그램과는 조금 다른 관전 포인트들을 드러냈다. 그것은 그저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구매자인 소비자가 참여해 집을 구하는 ‘리얼 상황’을 그대로 가져왔다는 점이다. ‘5인 가족이 함께 살 전원주택’을 찾는 의뢰자들을 대신해 박나래와 송경아가 용인에서 발품을 팔아 보여주는 집들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아이들을 위해 미끄럼틀 계단과 공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공부방이 돋보이는 용인 아이디어 하우스나, 여심을 자극하는 인테리어 끝판왕을 보여준 용인 아치 하우스를 보다 보면 저런 집에서 살고 싶다는 마음이 절로 든다.

양양에서 네 자녀와 함께 살 단독주택을 구하기 위해 장동민과 정시아가 찾아간 남대천이 한 눈에 들어오는 집은 도시의 삶에 지친 이들에게는 하나의 별장 같은 로망으로 다가온다. 양쪽이 마치 쌍둥이처럼 똑같은 데칼코마니 한옥 주택은 그 보는 재미만으로도 시청자들을 끌어들인다. 게다가 이 프로그램은 이 집의 가격을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의뢰인뿐만 아니라 시청자들까지 그 집에 대한 현실감을 부여한다. 저런 곳에서 살고 싶다는 현실감.

의뢰인을 두고 팀으로 나뉘어 서로 자신들이 찾은 집이 더 낫다고 붙는 일종의 배틀은 그저 부동산 홍보가 될 수도 있는 위험성을 차단한다. 그들은 서로 상대방의 집을 두고 하자(?)를 찾아내려는 예능적인 대결을 보이기도 하지만 때론 실제 단점들을 찾아내기도 한다. 물론 현장에서 집을 찾는 출연자들의 세심함도 중요한 지점이다. 태양광 집광판이 있는 집을 보면서 그저 전기료 절약을 떠올리면서도 꼼꼼하게 10년 정도면 들어갈 수 있는 수리비용을 묻는 하재숙의 꼼꼼함은 시청자들에게 신뢰감을 주는 요소가 아닐 수 없다.

부동산으로서의 집이라고 하면 주로 서울과 도심에 집중되는 걸, 지방과 시골로까지 확장하고 나아가 아파트만이 아니라 단독주택과 전원주택 등 다양한 형태의 집들을 소개하는 것도 의미 있는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첫 회에 서울이 아닌 부산에서의 집 찾기를 보여주고, 강남권에서도 놀라울 정도로 가격이 낮은 역세권 집을 발견해내며, 이천, 용인 그리고 양양까지 발품을 파는 모습은 집에 대한 막연한 선입견과 편견을 깨준다. 그것만으로도 이 프로그램의 존재 가치는 충분하다 여겨질 정도로.

사실 의식주 같은 우리네 필수적인 삶의 요소는 우리의 시선을 잡아끄는 본능적인 소재가 아닐 수 없다. 그 많은 의상들을 선보이는 프로그램들이 그렇고 너무 많아 이제는 식상해질 정도인 먹방이 그렇다. 집 역시 여러 프로그램에서 소개된 바 있지만 ‘구해줘 홈즈’처럼 좀 더 집중적으로 실제 현실을 담아 프로그램화한 건 드문 시도다.

물론 우리에게 집은 판타지와 박탈감을 동시에 주는 소재다. 상상 속에서나 그릴 법한 그런 집들은 우리의 로망을 자극하지만, 그것이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다는 현실감은 박탈감을 줄 수도 있다. 그러나 지나친 도시화로 인해 말도 안되는 평수가 어마어마한 가격으로 공시되고 있는 비현실 속에서, 조금 밖으로 시선을 돌리면 보다 현실적인 판타지가 가능하다는 걸 보여준다는 건 의미 있는 일일 수 있다. 현실과 판타지 사이에 균형을 맞춰가는 일이 중요하지만, 그렇게만 된다면 ‘구해줘 홈즈’가 의외로 집방의 새로운 세계를 열 가능성이 높아지는 이유다.

‘집사부일체’ 국민영웅 소방관 사부 등장…최고시청률 7.7%

SBS ‘집사부일체’에 ‘어벤져스’급 국민 영웅들이 등장했다.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5일(일) 방송된 SBS ‘집사부일체’는 ‘국민 영웅’ 사부로 소방관들이 등장,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으며 20~49세 젊은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집계한 ‘2049 타깃 시청률’ 2.4%, 가구 시청률 5.5%를 기록했고, 분당 최고 시청률은 7.7%(수도권 2부)까지 올라 눈길을 끌었다.

이날 이승기, 이상윤, 양세형, 육성재는 5월 4일 국제 소방관의 날을 맞아 ‘화벤져스’ 사부를 맞이했다.

대한민국 5만 명의 소방관을 대표해 ‘집사부일체’를 찾은 ‘화벤져스’는 23년차 베테랑 소방관 배몽기, 세계 소방관 대회에서 한국인 최초로 세계 챔피언으로 등극한 홍범석, 특전사 출신 조명수, 특수부대 출신 이진희 소방관이었다.

이날 멤버들은 ‘화벤져스’ 사부들과 고강도 소방훈련을 받았다. 첫 훈련으로 4분 안에 방화복 및 공기호흡기 착용하기에 도전한 멤버들은 이후 일명 ‘터미네이터’라 불리는 세계 챔피언 홍범석 사부와 4대 1 대결을 시작했다. 멤버들이 홍범석 사부와 진행할 대결은 실제 소방관들도 버거워하는 지옥훈련으로 장비를 착용한 채 소방 호스 끌기, 32kg 덤벨 옮기기, 75kg 부상자 옮기기, 9층 계단 오르기 등의 코스가 있었다.

멤버들은 실제 상황인 것처럼 이를 악물고 노력했지만 홍범석 사부를 따라잡기는 역부족이었다. 대결을 끝낸 후 이승기는 “그냥 올라오는 것도 힘든데 호흡기 끼고 호스 끌고 누구를 구조한다는 게 진짜 대단하신 것 같다”라며 놀라워했다. 홍범석 사부는 “계단 같은 경우는 훈련을 많이 했는데 아무리 해도 힘든 건 어쩔 수 없더라. 계단 뛸 때는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다. 항상 ‘저 위에서 요구조자가 내 도움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힘을 다 쓰면서 하고 있다”라며 구조임무를 위해 힘든 체력훈련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음을 밝혔다.

이후 멤버들은 동료 간의 신뢰가 필수적이어야 하는 2인 1조 레펠 훈련, 담력훈련을 마친 후 소방차를 타고 현장으로 향했다. 현장은 불에 대해 배우는 실물 화재 훈련장이었다. 이곳에서 멤버들은 실내 화재 현장에 산소가 갑자기 다량 공급될 때 연소가스가 순간적으로 발화하는 백드래프트 현상을 체험해보기로 했다.

이날 백드래프트의 전조 현상인 흰색 연기가 훈련장을 뒤덮은 장면은 긴장감을 자아내며 분당 시청률 7.7%로 ‘최고의 1분’을 차지했다.

한편, 이어진 예고 영상에는 직접 불길 속으로 들어가는 멤버들의 모습이 그려져 긴장감을 더욱높였다.

‘구해줘2’ · ‘보이스3’, OCN 드라마 판갈이…이름값 증명할까

OCN 드라마가 새판 짜기에 돌입한다. 신작 수목드라마와 토일드라마가 시청자들을 만난다. 특히 이 드라마들이 이미 검증된 드라마의 후속작이라는 점에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먼저 오는 8일 수요일 밤 11시 OCN 새 수목 오리지널 ‘구해줘2’(극본 서주연, 연출 이권)이 시청자를 찾는다. ‘빙의’(극본 박희강, 연출 최도훈) 후속으로 시작하는 ‘구해줘2’는 궁지에 몰린 마을을 구원한 헛된 믿음, 그 믿음에 대적하는 미친 꼴통의 나 홀로 구원기. ‘부산행’의 연상호 감독의 애니메이션 ‘사이비’를 원작으로 한 작품으로, 연상호 감독이 크리에이티브 자문으로 참여한다.

댐 건설을 위해 수몰 지역으로 선정된 월추리 마을에 종교 단체를 세우고자 하는 최경석(천호진 분)과 홀로 그에게 대항하는 미친 꼴통 김민철(엄태구 분)의 이야기가 주된 스토리다.

‘구해줘2’는 2017년 사이비 스릴러 장르를 최초로 시도하며 화제를 모은 ‘구해줘’(극본 정이도, 연출 김성수)의 후속작이다.

‘구해줘’는 조금산 작가의 웹툰 ‘세상 밖으로’를 원작으로 한 작품으로, 사이비 종교 구선원에 감금된 임상미(서예지 분)의 “구해줘”라는 요청에 무지군의 백수 4인방 한상환(옥택연 분), 석동철(우도환 분), 우정훈(이다윗 분), 최만희(하회정 분)가 구선원의 실체를 본격적으로 파헤치는 드라마다.

‘구해줘’는 “될지어다”라는 유행어를 만들어냈으며, 사이비 교주 백정기 역할을 맡은 조성하와 임상미 역의 서예지가 ‘인생캐릭터를 경신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구해줘’는 평균 4.8%(전국 유료 플랫폼 기준)의 높은 시청률로 종영했다.

이어 OCN 새 토일 오리지널 ‘보이스3’(극본 마진원, 연출 남기훈)가 ‘킬잇’(극본 손현수 최명진, 연출 남성우 안지숙) 후속으로 11일 토요일 밤 10시 20분 첫방송된다. ‘보이스3’는 범죄현장의 골든타임을 사수하는 112 신고센터 대원들의 치열한 기록을 그린 소리 추격 스릴러.

‘보이스3’는 ‘보이스1’(극본 마진원, 연출 김홍선)에 이어 ‘보이스2’(극본 마진원, 연출 이승영)와 이어지는 이야기로 보이스 프로파일러 강권주(이하나 분)와 악한 본능이 깨어난 형사 도강우(이진욱 분)의 공조, 그리고 더욱 강력해진 사건들을 다룰 예정이다.

특히 ‘보이스2’의 마지막회 시청률은 평균 7.1%(전국 유료 플랫폼 기준)을 기록한 바 있다. 이는 자체 최고 시청률이자 OCN 역대 최고 시청률 기록이다.

이에 OCN 역대 최고 시청률을 기록한 명작 ‘보이스3’의 귀환에 시청자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우려되는 지점도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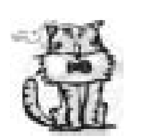
‘구해줘2’와 ‘보이스3’의 전작인 ‘빙의’와 ‘킬잇’이 1-2%의 저조한 시청률을 기록했다는 점이다.

침체기를 겪고 있는 OCN 오리지널 드라마들이 검증된 명작들과 만나 ‘구원투수’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오늘의 운세 2019년 5월 7일 화요일 (음력 4월 3일)

▶쥐띠 꽃이 피면 봄 눈이 오면 겨울이란 것은 IQ 50도 알 것이다. 3, 4, 12월생 당신이 생각지도 않던 사람이 찾아와 도움을 주겠으나 자리를 비우면 기회를 놓친다. 전화 소리에도 신경 씀이 좋겠다. 일찍 귀가할 것. ㄴ, ㄷ, ㅁ, ㅎ성씨가 귀인.

▶소띠 아직도 해결 안 된 힘든 일이지만 오후에는 서둘지 않아도 될 듯하다. 1, 3, 8, 11월생 급하다고 바늘허리에 실을 매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어젯밤 꿈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면 해가 진 뒤 정다운 사람과 데이트를 할 것이다. 동, 서쪽이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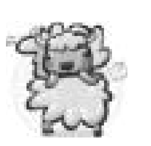

▶호랑이띠 급여날이 멀었는데 왜 가불을 하려는가. 5, 7, 12월생 쓸 때는 좋겠으나 봉급날 후회하니 참아라. 쓰지 않으면 더 좋겠다. 쓸 기회는 또 있으니 서두르지 말고 상대방에게 맡겨라. 눈치 보지 않고 기분 좋게 지낼 수 있다. 빨간색은 삼갈 것.

▶토끼띠 지도도 없이 악산을 오른 사람이 길을 잃지 않고 때가 되어 하산하는 격이다. 뜻한 바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다. 그러나 기분이 좋다고 음주하면 호루라기 소리에 늦은 시간 기분 잡치기 쉽다. ㄱ, ㅁ, ㅎ성씨를 조심. 전기, 가스, 건설업은 길.

▶용띠 친구와 함께 음식점에서 사먹은 전복 속에서 진주를 얻는 횡재처럼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 일이 더 큰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다. 뱀띠나 돼지띠만 주의한다면 당신에게 행운이 올 듯. 2, 5, 11월생 여자는 퇴근길 조심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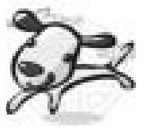
▶뱀띠 딸만 기다리는 아들 둘 가진 아빠가 아내의 임신소식을 듣는 것처럼 긴장된 하루가 될 것이다. 기기다림 끝에 보람을 느낄 수 있다. 성급한 마음은 버리고 서서히 추진하라. 남쪽에 있는 사람과 약속한 일은 성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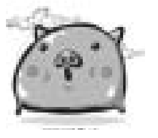
▶말띠 많은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지 마라. 주머니에 당신 손이 아닌 다름 사람의 손이 들어올 수이다. 인생길에는 즐거움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잠시 명상하며 차 한잔 마시면서 과거를 회상하는 오늘이 되어야겠다.


▶양띠 친한 사람들과 하고자 하는 일을 오늘만은 삼감이 좋다. 특히 범띠와 하고자 하는 것은 성사가 가능하지만 몇 번이고 생각해서 처리하도록 할 것. 혼자서 하려는 일은 순조롭게 진행될 듯. 힘에 겨우면 동쪽 사람과 상의해야 길.

▶원숭이띠 힘에 겨운 일은 혼자서 하지 말고 ㅁ, ㅅ, ㅊ, ㅎ성씨와 손잡고 상의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주변에 신경을 쓰고 찾아보라. 조력자가 되어줄 이 반드시 있다. 투기는 금물이다. 7, 9, 12월생 북, 동쪽이 길. 검은 옷이 힘을 준다.

▶닭띠 자만을 버리고 뜻한 바를 성취하는 큰 기쁨. 꿈을 꾸지 않았어도 좋은 하루가 되겠다. 다만 사랑하는 사람에게 신병이 찾아들 수 있으니 음식을 조심하라고 전화로 한마디 정도 해줌이 좋을 듯. 1, 2, 11월생 돼지띠가 도움줄 것이다. 주황색이 길.


▶개띠 실력을 과시할 기회가 생기니 땀 흘려 분발하라. 보이지 않는 먼 곳에서 그대를 평가하는 사람이 있다. 너무 늦게 귀가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 짜증만 늘 것이다. 용띠가 길손이다. ㅁ, ㅂ, ㅍ성씨는 남쪽에서 재물이 들어올 듯.


▶돼지띠 오랫동안 미루어온 일들이 ㅂ, ㅇ, ㅎ성씨 덕분에 기분 좋게 이루어질 것이다. 윗사람에게서 칭찬도 받는 날이니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줌이 좋다. 2, 5, 9월생은 승진 소식 들릴 듯. 애정에 지나치게 신경쓰는 것은 금물.